

한국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나 역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입장이다. 금연하는 일이 쉬운 것이라면 나역시 금연하고 싶다.

그러나, 어렵다. 흡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알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문제되고 있는 담배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그리고, 흡연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법적 제제가 있어서 지금은 거의 일반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광고에서 담배를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 나는 조금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언젠가 한번 'This' 라는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본적이 있지만, 직접 담배를 TV화면에 나오게 하진 않는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의 광고회사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담배가 기호 상품이며, 상품으로서 광고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호기심 많은 청소년과 아이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음을 배제할수 없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권리가 있으면, 그 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도 있다. 만약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남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것이다.

우리 대학 - 순천 대학 - 에서도 담배를 아무데서나 피울수 없도록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다.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알아야, 자신의 권리도 남이 인정 해 줄수 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공공장소에 흡연 장소를 만들고, 법적제제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TV를 통한 담배 광고는 자제 했으면 한다. 그렇다고,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그들의 권리 또한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문제든지 해결 할수 있을 것이다.